



01 국제교류원의 칼럼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모란 벤자민-

○즐거웠던 CIR 오리엔테이션

02 지사의 움직임

○가고시마시 중일우호협회 창립 40주년 및 가고시마현 중일우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 출석하였습니다. (11 월 3 일)

○주일중국대사와 재후쿠오카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1 월 4 일)

○브라질 가고시마 현인회 여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11 월 4 일)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제 74 회 오하라마츠리 (11 월 2 일,3 일)

○다루미즈 센본잇쵸 마츠리(11 월 22 일~12 월 14 일)

○제 32 회 요론 마라톤(10 월 25 일,26 일)

○가고시마현내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11 월~1 월)

⌚ Coming UP! 【2026년 1 월,2 월 이벤트 정보】

●즐거웠던 CIR 오리엔테이션●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모란 벤자민 (영국 출신)

12 월 중순, 저는 가고시마 CIR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가고시마현 내 국제교류원 전원이 가고시마시에 모여, 2 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가고시마현청에서 가고시마현에 관한 세미나를 수강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의 관광정보와 역사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 세미나에서 다른 지역의 CIR 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아침 집합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가고시마의 밤을 다른 CIR 들과 만끽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현내 시찰을 하였습니다. 오전 9 시에 현청을 출발하여 최초 목적지인 소주 주조장 “이부스키 주조”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시찰지를 소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만, 시간이 시간인지라 제 최대의 과제는 모두를 잠들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 시반 쯤, 첫번째 시찰지인 “이부스키 주조”에 도착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주조장의 투어 가이드님이 마중을 나와계셨습니다. 그 후 주조장의 직원분의 안내 받으며 건물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소주의 향에 둘러싸였습니다. (소주를 만드는 곳이므로 당연한 일입니다 😊)



먼저 소주를 종류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소주의 발효를 촉진하는 효모를 다루는 방법, 사용하는 3 종류의 효모(황색 효모, 백색 효모, 흑색 효모)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모가 소주의 맛을 내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거대한 탱크에 소주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로 가, “이부스키 주조”가 제조하

고 있는 다양한 소주의 향을 맡았습니다. 큰 탱크 주변에 모여 금 속으로 만들어진 뚜껑을 열고, 소주가 가득 들어있는 탱크 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 직원분이 부채를 사용해 저희 모두가 소주의 향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강한 소주의 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2 종류의 소주가 놓여있는 방에서 소주의 맛을 비교하면서 시음을 하였습니다. 저는 소주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마셔 본 소주가 있었던 것과 많은 종류의 소주를 마실 수 있던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 후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조금 멀미를 하였습니다 😊



점심은 “도센쿄 소멘 나가시”입니다. 가고시마의 소멘나가시는 일반적인 소멘나가시와는 조금 다르며 원형의 전용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기계 안에서는 물이 빙빙 돌고 있어 국수를 그 안에 넣어 훌러가게 한 후 젓가락으로 건져 먹습니다. 이부스키의 “도센쿄 소멘 나가시”는 다른 가게와 달리 여름

뿐만 아니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운 송어도 같이 먹었습니다만, 굉장히 배고픈 상태여서 사진 찍는 걸 깜빡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 후에는 일본 최남단 철도역인 JR 니시오야마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는 숨이 멎을듯이 아름다운 가이몬다케가 보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 세미나에서 가이몬다케는 바다에서도 매우 잘보이기 때문에 외국 선박이 일본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 이용했다고 배웠습니다만, 실제로 본 가이몬다케는 압권이었습니다.

이 날의 마무리는 이부스키시 해안에 있는 “모래찜질 회관 사라쿠”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래찜질 온천은 지하에서 뿐 어져 나오는 온천의 열로 자연적으로 데워지는 모래를 이용하여 전용 유카타를 입고 약 10 분



간 뜨거운 모래로 몸을 덮습니다. 모래의 무게와 열로 몸 깊숙한 곳까지 따뜻해져, 모래에 덮인 채로 땀을 뺍니다. 모래에 덮여 있는 동안은 그 날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전통적인 온천에 들어가 몸을 식혔습니다. 이부스키의 명물 모래찜질 온천을 즐기고 릴랙스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가고시마시에 돌아오는 길은 국제교류원들은 2 일간의 피로 때문인지 잠든 사람이 많아, 조용하게 돌아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년 오리엔테이션에 추천해주실만 한 장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2 지사의 움직임

○가고시마시 중일우호협회 창립 40 주년 및 가고시마현 중일우호협회 창립 20 주년 기념 행사에 출석하였습니다. (11 월 3 일)

"가고시마시 중일우호협회 창립 40 주년 및 가고시마현 중일우호협회 창립 20 주년 기념식 전"에 출석하여 내빈으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역대 협회임원, 회원 여러분들이 가고시마현과 중국의 징검다리로서 중일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40 주년, 20 주년을 계기로 두 협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가고시마현과 중국의 교류의 심화, 우호관계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행사에서 인사하는 모습



▲기념촬영

○주일중국대사와 재후쿠오카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1 월 4 일)

중국의 오장하오 주일중화인민공화국 대사와 양칭동 재후쿠오카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가 현 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대사는 중국과 가고시마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으며, 장래를 지향하며 지역간교류를 시작으로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오타지사는 앞으로도 청소년교류와 문화교류, 경제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오장하오대사와 기념촬영



▲기념촬영

○브라질 가고시마 현인회 여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11 월 4 일)

가고시마현이 실시하고 있는 현비유학생 제도를 통해 가고시마현에 유학했던 분들을 비롯하여 가고시마현인회 여러분들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가고시마현에서 브라질 등으로 이주한 분들의 자제들을 유학생으로서 가고시마현에 초청하여, 공부를 하고 귀국 후 가고시마현과의 징검다리로써 상호 경제, 문화교류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0년 사업개시 이후, 브라질에서 96명의 유학생이 가고시마현에 왔습니다.

시오타지사는 브라질 가고시마현인회의 젊은 세대 분들도 가고시마현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교류를 중심으로 브라질 가고시마현인회와의 교류,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에조노 전회장과 기념촬영



▲기념촬영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제 74 회 오하라마츠리 (11 월 2 일,3 일)

매년 11 월 2 일,3 일에 텐몬칸 주변에서 열리는 오하라마츠리는 1949 년부터 시작된 남규슈 최대의 축제입니다.

가고시마현을 대표하는 민요 “오하라부시”와 “가고시마 한야부시”, “시부야 온도”에 맞춰 행진하면서 춤추는 “총오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2 일 “전야제”에서는 총오도리, 오고죠다이코경연이, 3 일의 “본 공연”에서는 총오도리, 오고죠 다이코경연, 마칭밴드, 댄스 등이 선보여지며 텐몬칸 일대가 떠들썩해집니다.

행렬의 많은 그룹들이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고 다함께 춤을 추는 장면은 압권이며 오하라마츠리 전날부터는 라이트업 한 꽃전차가 운행되며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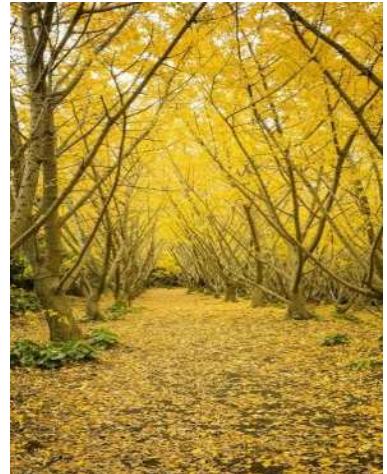
“오고죠”는 가고시마의 방언으로 “여성”이라는 뜻이며 용맹하고 아름다운 사츠마오고죠의 다이코와 피리의 연주는 꼭 보셔야합니다.



▲”전야제”, ”본마츠리”의 모습. 사진제공-가고시마시

○다루미즈 센본잇쵸 마츠리(11 월 22 일~12 월 14 일)

공원 안에 1200 그루 이상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단풍시즌을 맞으면 거리가 모두 황금빛으로 물드는 다루미즈시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공원의 소유주와 부인이 2 인 3 각으로 황폐했던 산을 개척하여 40 년이상 시간을 들여 만든 “황금 낙원”입니다. 이벤트 기간중에는 밤에 라이트업이 실시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

사진제공「© K. P. V. B」

○제 32 회 요론 마라톤(10 월 25 일,26 일)



가고시마현 최남단 요론섬에서 매년 개최되는 섬을 일주하는 마라톤입니다. 요론섬은 평坦하고 작은 섬이지만 오르막길과 커브가 많아 마라톤 코스중에서는 난도가 높은 코스입니다. 그러나 푸른색으로 빛나는 해변을 달리는 포인트,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풍경 등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는 섬 외곽도로를 코스를 달리다보면 나도 모

르게 멈춰서는 절경 포인트도 몇군데 있습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라고 환영해주는 섬 사람들 의 따뜻함이 섬의 매력으로 재방문자가 많으며 전국의 러너들이 모이는 대회입니다.

○가고시마현내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11 월~1 월)

가고시마시 아뮤플라자 가고시마와 이사시 소기노타키, 이부스키시의 플라워파크 가고시마 등 가고시마현내 각지에서 일루미네이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구로 빛을 내는 일루

미네이션 뿐만 아니라, 초롱, 촛불을 밝혀 오브제 등을 비추며 다채로운 빛으로 가고시마의 밤을 비추고 있습니다.

낮과는 다른 몽환적인 가고시마의 밤을 즐겨보세요.



▲현내 각지의 일루미네이션

(좌:아뮤플라자 가고시마, 위:플라워파크 가고시마)

Coming UP !【2026년 1월, 2월 이벤트 정보】

◇ 1월

11일 이부스키 유채꽃 마라톤(이부스키시)

25일 제 25회 세계 제일 사쿠라지마 다이콘 콘테스트(가고시마시)

◇ 2월

16일 가지히키 축제(가노야시)

22일 소주 투어 가고시마 2026(이치키쿠시키노시, 히오키시)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어수선한 계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 올 한해는 어떤 1년이었나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구글이 전국의 검색 동향을 조사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검색횟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키워드를 발표하였는데요, 가고시마와 함께 검색된 키워드 중 2025년 급상승 랭킹 1위에 오른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운석낙하”입니다.

8월 19일 심야, 운석같은 강한 빛이 밤하늘에 나타난 일이 화제가 되어 많은 분들이 검색하신듯합니다.
(인용 : 미나미니혼신문)

여러분의 2025년 사건 랭킹은 무엇인가요?

내년에도, 독자 여러분들께 가고시마의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대해주세요(^_^)/~~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그외에도 전세계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어 : 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가고시마 관광사이트



<https://www.kagoshima-kankou.com/>